

# 미국의 중동에너지 전략과 이념의 대립

김민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미국학과)

- I. 서론
- II. 본론
  - A. 고유가의 원인
  - B. 미국의 대 중동정책: 의도와 결과
  - C.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 D.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 E. 이란-이라크 연대의 비중 재평가
- III. 결론

## 한글 초록

예전부터 국제정치는 국가 간의 석유 쟁탈전이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인 동시에 안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년간 패권 국으로써 위상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근간에는 중동으로부터 풍부한 양의 원유를 공급받았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산유국가들 사이에서의 자원민족주의 운동과 함께 70,80년대 오일 파동은 미국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후, 미국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문제를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벌어진 이라크전쟁은 대량살상무기를 찾지 못하고 명분 없는 전쟁을 취했다는 국제적 비난만 형성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차지하려 한 것이 바로 이 석유이다. 이제 미국은 또다시 전후 이라크 내의 건설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확산이라는 명분으로 그 지역 내에서의 패권을 차지하려 한다. 미국은 미국식모델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이전 부흥의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야심찬 대 중동정책이 기존의 성공사례와는 반대로 중동에서는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미국의 일방적 대 중동정책이 오히려 반미세력을 확산시키고 중동국가들간의 정치, 경제적 지역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국제석유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고 이 논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주제어:** 미국의 대 중동정책, 고유가, 미국식 모델, 소프트파워, 걸프지역, 반미세력

## I. 서론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현재 배럴당 132.2달러, 5월 평균 기준으로 124.7달러에 달해 전년 동월대비 무려 96.6%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sup>225)</sup> 국제정치는 이제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점점 더 에너지 안보 문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현 패권유지에도 심각한 위협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예전부터 국제정치는 국가간의 석유 쟁탈전이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인 동시에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년간 패권국으로써 위상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근간에는 중동으로부터 풍부한 양의 원유를 공급받았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중동 지역이 원유 생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미국은 이 지역의 정치, 군사적 변화를 항시 주시하였다. 1908년부터 시작 된 미국의 중동 석유 개발은 당시 아직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한 불평등 계약관계였다. 1940년대는 중동에서 20-30년대에 걸쳐 생산한 상당한 양의 석유를 대량으로 미국으로 수입하여, 중동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증가시켰고, 동시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그 후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민족해방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이란을 비롯한 중동 석유 생산국들은 자국의 자원 및 관련 기반의 국가통제를 위해 석유사업의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1960년 석유 생산국간의 석유 가격과 정책 조정을 위해 OPEC이 결성된 이후 생산국간의 카르텔을 형성, 생산국 주도 하에 석유가격은 점점 인상되었다. 이러한 고유가 행진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이 계속되자, 석유 수요 역시 감소하였고, 이는 OPEC내 아랍과 비 아랍회원국간의 생산량과 가격조절의 와해로 이어졌다. 이런 고유가 현상을 타개할 방법으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고, 생산량과 가격조절을 통해 유가를 다시 안정시켰다. 결국, 1986년에 이르러 석유생산의 증가와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한 석유소비의 감소는 유가의 폭락을 이끌었으며, 이후 1990년대까지 저유가 시대가 지속된다. 2000년대 이후 유가 상승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상황은 유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테러, 파업 등의 돌발사건과 함께 국제유가의 대폭적인 상승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고유가를 1970년대 오일 파동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전략적 유대관계를 통한 상호보완적 동맹관계였다면<sup>226)</sup>,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더 이상 그들의 파트너를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 지역 전체가 잠재적 적국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19명의 항공기 테러리스트 중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한 왕실은 오랫동안 빈 라덴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잠재적 테러 국가인 이라크에서 독재자를 몰아내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군사기지를 지키며, 중동지역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즉, 미국만의 소프트파워를 동원하여 미국의 가치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확산시도와 경제적인 금융제재, NGO들을 통한 영향력 확대, 기타 공공 외교적 압력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등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대량살상무기 발견 실패라는 전쟁의 명분을 잃고, 석유를 둘

225)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투자전략부, 2008.5.26

226)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생산량과 가격조정 책정에 동의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사우디 왕실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군사적 도움을 약속 받았다.

러싼 전쟁이라는 국제적 비난과 함께 평화를 지향하는 패권국으로써의 위상에 흠집을 냈다. 오히려 이라크 국민들의 생존 기반이 되는 인프라 시설확충에 실패하면서 이라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적 원성과 무능력함을 지적 받았다. 게다가 이라크는 침략 이후,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에게 신병 모집장과 훈련장이 되었다. 1996년부터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는 책임을 맡았던 CIA 선임 분석가 마이클 쇼이어(Micheal Scheuer)는 “미국의 무력행사와 정책이 이슬람 세계의 급 진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sup>227)</sup>. 이처럼,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전략은 미국과 이슬람 세력 간의 종교적, 이념간의 대립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또한, 다시 한 번 OPEC 국가들 간의 카르텔 형성에 영향을 끼쳐 반미세력 확산과 고 유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미국의 일방주의인 대 중동 에너지 정책이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가속화시켜 현재 고 유가를 야기 시켰다고 보고 이 논문을 연구하였다. 우선 처음엔 근본적인 현재 고 유가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미국의 중동 에너지 전략의 의도와 결과,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고유가 시대 부상하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 본 다음 앞으로 미국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전개해 나가겠다.

## II. 본론

### A. 고 유가의 원인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현재는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며, 연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불과 5년 사이에 가격은 5배 가량 폭등하였고 여전히 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200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는 불안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의 고 유가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첫째,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 소비의 증가, 두 번째,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석유시장에 불안감을 고조, 세 번째, 달러화의 약세 등을 들 수 있다.

#### 1. 석유 소비율 증가

늘어만 가는 석유수요량 대비 공급량 확충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현재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 동안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의 BRICs국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석유 소비의 증가율 또한 과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중국의 무서운 성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력소비의 증가와 함께 산업 및 수송용 석유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최근 가파른 석유소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227) 노암 촘스키(Noa Chomsky), 강주헌 옮김 「Failed States: 실패한 국가, 미국을 말한다.」, (서울:황금나침반, 2007) 46쪽

표1. [소비량산유국현황]

순위	국가	소비량(천b/d)			증감 (B-A)(%)	2001년 순위
		"01년 (A)	"02년 (B)	비중 (%)		
1	미국	19,649	19,708	25.4	59(0.3)	1
2	중국	5,030	5,362	7.0	332(6.6)	3
3	일본	5,434	5,337	6.9	△97(△1.8)	2
4	독일	2,804	2,709	3.6	△95(△3.4)	4
5	러시아	2,456	2,469	3.5	13(0.5)	5
6	한국	2,235	2,288	3.0	53(2.4)	6
7	인도	2,066	2,090	2.8	24(1.2)	7
8	프랑스	2,023	1,967	2.6	△56(△2.8)	8
9	이태리	1,946	1,943	2.6	△3(△0.2)	9
10	캐나다	1,941	1,988	2.5	47(2.4)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3)

중국은 200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원유 소비국이 됐다.(표1참조) 인구 10억의 인도마저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 석유수요는 더욱 빠르게 늘 전망이다<sup>228)</sup>. 이렇게 늘어만 가는 석유 소비율을 채워 줄 석유 보유량에 대한 의구심은 석유 가격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산유국들은 자국의 생산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유를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지만 OPEC을 중심으로 한 생산국 간의 국제적 카르텔 조직은 원유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석유 가격 조절 등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또한, 80-90년대 저유가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석유기업들은 해외 석유 개발과 투자를 하지 않았고,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왜냐하면 부진한 석유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높은 생산비에 대한 고통이 석유 기업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투자의 감소는 값싼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것은 생산국의 유전 고갈을 가속화 시켰다.

## 2.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저항세력에 의한 테러가 무차별로 이루어지는 등, 이라크의 치안 상황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석유산업의 위기감 또한 점차 고조되어 갔다. 수니파를 주축으로 한 저항세력의 테러공격으로 인해 이라크 북부 석유회사는 지중해로 연결되는 원유수송 파이프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남부 지역의 원유 생산 활동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이슬람주의자 집단에 의한 연쇄테러가 발생하였고, 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산유국 석유 시설에 대해 테러를 시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은 현재 고유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28) 동아일보, “석유의 국제 정치경제학-흔들리는 세계 에너지시장”, 2004.5.7

### 3. 달러화의 약세

미국의 쌍둥이 적자(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의 누적)와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경기불황이 계속되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입지가 줄어들었고, 이는 달러의 약세로 이어져, 투자자들은 석유 가격 상승을 통하여 가치 하락 손실분을 매꾸려 달러화나 달러표시 자산의 매각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달러화 자산 투자 자금이 비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달러 자산 이탈은 반대로, 비 달러 자산 즉, 원유, 곡물, 금 등과 같은 현물자산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이들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 B. 미국의 대 중동정책 : 의도와 결과

##### 1. 의도

냉전시기 미국의 대 중동정책 기조는 소련의 남하정책 봉쇄,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이었다. 미국은 유럽, 중동, 동북아시아로 이어지는 소련 봉쇄선을 설정하고 각 지역에 지역안보기구를 구성하여 소련의 남하를 저지했다. 또한 에너지 확보와 통제를 위해서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연안의 석유 생산국들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석유를 통제할 수 있었다. 즉 이들 국가의 안보와 미국의 석유 통제를 통해 상호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sup>229)</sup>. 그러나 탈냉전 이후, 미국은 명실상부 유일한 패권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전 세계 생산과정의 세계화와 무역의 자유화, 탈규제를 통한 시장의 세계화를 강요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국제 에너지 질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작용했다. 이라크 공격은 중동질서 개편의 중간역이며, 그 다음 순서는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의 유전 및 가스개발을 통한 수급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 지원이라는 형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테러잣대에 의한 체제보장과의 교환조건 등을 가능성으로 두고 있다.

2003년 11월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중동에 자유가 없음을 연설하면서 중동에서의 ‘자유전략’을 채택하였다. 이후 미국 내 정책입안자들은 선진 8개국과 협력하면서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적 개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중동구상(the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 계획을 입안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 중동구상안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테러와의 전쟁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은 당시 중동 상황에 대해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비인권적 사회풍조, 그리고 불안한 정치 등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대중동구상’의 필요성을 정당화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석유 에너지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sup>230)</sup>

##### 2. 대 중동정책과 미국의 이득

###### (1)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229) 정상률, “석유자원 확보 등 중동패권 유지 위한 미국의 대 중동정책”, (진보적 시사종합지 월간 “말”, 2007.4) 114쪽

230) 금상문 “미국의 ‘대중동구상’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외교정책”, 하계학술대회, 한국국제정치학회(2006) 3~4쪽

미국은 중동 테러리즘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중동에 강요하고 있다. 중동 이슬람국가들의 자유화, 민주화를 통해 1980년 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혁명’의 도미노 현상을 중동에서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부시 내 신 자유주의자들은 중동의 민주화 없이는 테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 중동 국가의 민주화를 주장하였다<sup>231)</sup>. 특히, 대중동구상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 하는데, 첫째, 민주주의, 인권, 언론, 여성과 NGO를 위하여 직접적인 자금을 증대시킴으로써 아랍 시민들에게 힘을 부여하는데 일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대중동구상은 선진 8개국의 함축적 목적인 공공 자유에 대한 아랍정부의 규제를 철폐한다. 셋째, 시민사회 감시과정의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NGO자금은 지역의 법 전문가, 또는 언론전문가에게 공여할 것이 제안되었다. 중동국가들이 이러한 대중동구상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했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것은 필연적이었다. 따라서 이집트를 필두로 점차 중동국가들에서 개혁이 확산되었다.

## (2) 자유 시장경제

미국은 자본의 후원아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생산과정의 세계화와 무역의 자유화와 탈규제를 통한 시장의 세계화를 강요하였다. 미국의 대중동구상이 목적으로 하는 시장화는 궁극적으로 중동 내에서의 점진적인 변화와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실시한 공기업부문 치중보다 사기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슬람 금융이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투자의 노력으로 전력과 텔레콤 분야에서 개방을 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경제 각 분야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 중이다<sup>232)</sup>.

## (3) 테러와의 전쟁

미국의 대 중동구상은 신 안보전략을 중동 지역에 적용하여 민주적 변화와 개혁, 인간 개발을 통해 중동 테러리즘으로부터 미국 및 서구의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이다. 아울러 대 중동 구상은 중동지역에서 전체주의적 이념, 국가 실패, 테러리즘, 대량과괴무기에의 접근선용이, 급진적 이슬람원리주의 세력 존재가 중동 지역뿐 아니라 미국, 서구, 세계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억압적인 부패한 정부와 이스라엘-아랍의 갈등은 소외와 실망감을 키우고, 결국 많은 젊은이들을 급진 이데올로기와 테러리즘에 가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 이스라엘적인 미국의 행보는 오히려 반미 세력을 부추겨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3. 결과

이렇듯 현재 중동 질서는 미국이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

231) 정상률, “미국의 ‘대 중동구상’에 대한 이집트의 대응 외교정책”, 「중동연구」 제25권 2호(2006)

232) 금상문, “미국의 ‘대 중동구상’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외교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2006) 10쪽

다.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는 이라크 전후 처리의 불확실성, 이란의 강경파 반미 정권 수립,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 및 정국 혼미 가능성 등의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 의장이 사망한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으며, 리비아의 핵개발 포기 선언, 시리아 군의 레바논 철수,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주선거 등은 미국의 대중동구상이 잠재적인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가 있음을 보여준다<sup>233)</sup>.

### C.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중동지역 최고 동맹국으로서 국내적 인권탄압과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왕정의 부패에 대한 국민저항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 가문과 사우디 왕가와는 기름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를 나타내 왔다. 그러나 지난 1991년의 걸프전과는 달리 이제 이라크를 공격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세 변화는 석유시장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가장 큰 변수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내외 상황이 모두 대단히 급격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어 안정성 면에서 취약한 상태이다. 석유시장에서 미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안정성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석유 보존 양과 생산 가능량 등 기존에 알려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여전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였다. 두 번째, 비민주적 사회제도, 왕정의 부패 및 무능함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결합되어 심각한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 국제 테러집단에 의한 석유관련 시설 공격 가능성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동맹정책 부재로 인해 친미도 아니고 반미 연대도 아닌 불안정한 과도기에 진입해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증산수출과 감산수출이라는 비장의 카드로 외교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독자적 안전보장추구란 관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도발에 대하여 미국이 사우디를 방어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이데올로기 즉 수니와 시아란 종교적 지도력 경쟁, 경제력적 경쟁관계란 관점에서 이란과 독자적 안전보장을 이루기 위하여 독자적 무기구매를 외교 전략으로 내걸고 있다. 이외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무기 프로그램 외에 사우디 영토에서 미군과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우디정부는 미국의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사우디 정권교체에 대항하기 위해 정권보장이란 측면에서 내부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부정통성 확립이 외교정책으로 표현된 것이 걸프 만 국가들과의 협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 만 협력기구를 통하여 내부정통성확립과 정체성이란 목적과 함께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 집단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동안정화정책과 에너지 안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외 사우디아라비아는 EU,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대중동구상 정책에 대응하면서 외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 D. 미국과 이란의 관계

233) 정상률, “미국의 ‘대 중동구상’에 대한 이집트의 대응 외교정책”, 『중동연구』 제25권 2호(2006)

이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략적 위치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란의 위치는 (페르시아 만 북쪽)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UAE 등을 위협한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세계 수출량의 40%가 지나가는 요충지이며, 이란은 중국, 인도, 일본에 대해 중요한 공급국가가 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수출량도 점차 늘어날 추세이다. 이것은 향후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이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란의 미래 생산능력 향상 가능성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현재 일일 4백만 배럴에서 적어도 향후 일일 3백만 배럴 규모의 증산 역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시장에서도 이란의 중요성은 엄청나다. 이란은 세계 가스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란이야말로 파이프라인 팔러틱스(Pipeline Politics)요인이 가장 극명하게 기능할 수 있는 국가이다. 더군다나 페르시아 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잠재적인 군사적 역량, 유럽과 아시아 가운데 위치해있다는 지질학적 전략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이 매우 중요한 국가로 부상할 것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이란의 가스와 석유 개발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다<sup>234)</sup>.

이란은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자국의 안전강화를 위해 미국에 가장 강력한 견제력을 가진 중국-러시아 전략연대와 유럽,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 에너지성에 의하면 이란은 2003년도 중국 석유수입의 14%를 제공했다. 그리고 매년 이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도 매우 중요하다 이란과 중국석유화학그룹인 SINOPEC은 2004년 10월 천 억 달러에 달하는 25년 장기 LNG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중국의 해외 에너지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중 하나이며, 두 국가의 전략적 연계성을 반영하는 조치이다.

인도에게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석유와 가스 확보를 위해 이란은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2005년 1월 인도의 GAIL(CAS AUTHORITY OF INDIA LTD)은 이란의 국영가스 수출 공사와 매년 액화천연가스 750만 톤을 30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무려 5백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파키스탄-인도로 이어지는 3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이미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이란과 인도에만 성과가 큰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도 매년 205억 달러의 통과료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의 아지즈 총리는 이 공사가 3개국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임을 지난 1월에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들어 압박하는 가하면 3월 16일 인도를 방문한 기회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인도와 이란 간 파이프라인 건설협력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2003년 초 일본의 3개 기업 콘소시움은 페르시아만 해상의 이란 SOUTH-NOWRUZ유전의 지분 20%를 획득했다. (10억 배럴 규모). 2004년 이란 해상유전 공사는 일본의 JGC에게 12억 6천만 배럴에 달하는 추가 계약을 안겨주었다<sup>235)</sup>.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이러한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가지는 전략적 목적은 두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는 이란의 석유와 가스 시장을 열어 미국 기

234) 그러나 현재 미국기업들은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Executive Order(EO) 12959때문에 이란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4년 3월 이것을 새로 갱신 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이란과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을 처벌하는 법 ILSA(Iran-Libya Sanction Act of 1996)을 제정하였다.

김상문, “미국의 ‘대 중동구상’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외교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2006) 10쪽

235) 김재두, 「오일 100달러 시대는 오는가」, (eBook:김%정, 2006). 58쪽



업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란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핵개발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란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진출을 금지시킬 것이며 따라서 이란은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도를 변화 시키려는 판단 하에 정권교체 등의 형태로 시도 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란의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는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이라고 평가한 점, 2003년 6월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부시는 이것은 이란 국민들이 자유 이란으로 나아가는 열정이 있음을 알리는 시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북부 동맹을 이용한 것과 같이, 현재 이라크에 있는 반정부 민병대를 이란에서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미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란 수뇌부는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인식이 가져다 주는 위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이란과 미국 관계에 석유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2005년 3월 1일 이란 Expediency council secretary Mohsen Rezai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것은 전 중동의 석유를 위협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미 국방성은 이란의 이러한 위협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미국 군사정보국(Defense Information Agency) 국장인 로웰 자코비(Lowell Jacoby) 제독은 2005년 2월 16일 상원 정보위원회 증언에 앞서 “이란은 그리 힘들이지 않고 육, 해, 공군 병력을 동원해 실현할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 때문에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풍부한 석유와 가스라는 자원을 무기로 하여 우호적인 협력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란의 전략은 장기 공급계약과 에너지 개발권에 대한 접근 허용이 핵심이다. 또한 잉여 오일 머니로 대규모 건설공사를 입찰하거나 에너지 관련 시설을 지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강경기조에 힘이 실려 중동문제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을 유럽이 주장하는 외교적 해법으로 협력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일단 유럽에게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주고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경기조로 선회하는 명분 축적의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 해법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05년 내로 이라크에서 주권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미국에게 이란의 운신 폭을 넓히는 정책구사는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자원협력, 미국에 대한 석유무기화 공조 등 국가 연대를 강화시켜왔다. 또한 이란은 중국에게는 야다바란 유전 일본에게는 아자데간 유전 등 초대형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2004년 국제입찰시장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최고의 수혜자 위치를 부여하였다. 즉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와 같은 강경책이 이란만이 아니라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줄 동맹국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스스로 미국의 예봉을 피해나가는 정책적 대응을 한 것이다<sup>236)</sup>.

#### E. 이란-이라크 연대의 비중 재평가

이란과 이라크의 매장량과 전략적 가치에 대한 비중은 재평가 될 확률이 많다. 이란과 이

236) 이원우, “고유가의 원인과 대응방안”,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본 연구 보고서」 (2005) 부록 163~164쪽

라크에서는 1900년대 초에서부터 1970년대까지 10억 배럴 이상 규모의 유전이 포함 35개 발견되었다.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의 걸프전과 오랜 경제봉쇄, 이란의 신정정치와 이라크의 후세인 독재체제로 인해 두 나라의 석유자원에 대한 개발은 서방자본이 진출했던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의 손길이 현저히 늦어졌다.

이라크 내에서 미국은 자국의 자본이 독점적으로 개발권을 쥐기를 원하고 이라크 정부는 외국자본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구성을 원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라크 영토 내에 묻혀있는 석유자원의 가치가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란 역시 자원분야에 관한 한 매장량과 송유관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재평가가 불가피한 국가이다. 카스피해의 막대한 석유가 이란을 통해 페르시아 만으로 나올 경우 정제와 운송 등 다양한 기존 인프라의 사용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많은 서방자본들이 “경제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이상적 대안”으로 군침을 흘려온 그림이다. 다만 2005년 6월 이란 대통령으로 선출된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보수적 노선의 지도자라는 점 때문에 이란 핵개발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이 지역이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유력한 곳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란이 서방자본이 진입하지 못한 채 신정정치체제 하에서 자원대국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시나리오 일 것이다. 특히 핵개발 문제를 원칙적으로 막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 페르시아 만은 자칫 미국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된 가운데 이란-이라크를 축으로 유럽과 중동이 초대된 손님으로서 잔칫상을 즐기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중국과 이란간의 에너지 협력 및 군사협력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란과 이라크가 시아 이슬람이란 테두리 내에서 외교적 공조체제를 갖출 경우 미국의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바로 이점이 향후 이란과 이라크가 석유시장에서는 물론 세계질서에서 더욱 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페르시아 만에 연한 이란의 고산지대에 썬번 초음속 미사일이 배치된 상황에서 어떤 국가라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란에 군사적 공격을 시도할 엄두를 낼 수 없다. 설령 미국이 이란을 제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페르시아 만의 봉쇄로 세계경제가 입게 될 끔찍한 혼란과 그 비탄의 화살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란은 이러한 구도를 십분 이용해 미국의 핵개발 압력을 피해나가면서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열중하고 있다<sup>237)</sup>.

게다가 현재 세계 매장량의 22% 정도를 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김은 점차 약화되면서 이라크와 이란의 입김은 탐사와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자원전쟁의 시대에서 필요 시 미국과의 대립을 불사하겠다는 두 나라가 시아 이슬람이란 종교적 연결고리와 자원보유국으로서의 공동 운명을 걸고 대립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페르시아 만이 여전히 피 념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슬픈 결론을 내리게 한다.

### III. 결론

이라크 전쟁 후 중동 내 평화확산이라는 명분아래 미국의 대 중동구상은 민주주의라는 대표적인 미국식 소프트파워를 내세워 중동 국가 내에서의 친미세력 확장을 목표로 세워졌다. 즉, 이라크에 민주화된 정권을 정착시킴으로써 인근 시리아와 이란에 민주화를 확산시키고,

237) 이원우, “고유가의 원인과 대응방안”,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본 연구 보고서」 (2005) 부록 166~167쪽

반테러 반확산 정책을 완성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반미, 반서구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반정부단체 지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시도했다. 2003년 그루지아(Georgia)의 Sea Island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러한 대 중동정책은 친미 권위주의 정권인 이집트를 필두로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동 전역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도입의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상황은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민주화의 열풍에 따라 선거 참여 및 제도권 진입을 표방하며 전면에 등장한 이슬람 정치세력들의 세력이 부상한 것이다<sup>238</sup>). 이슬람 세력의 정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민주화와 이슬람 정치의 심화라는 생각이 점차 힘을 얻게 되었다. 단순히 다수의 의사에 의해 지도자가 선출되고 정책이 결정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이슬람의 신앙적 순수성을 주장하며, 이슬람 정치의 수월성과 과거 아랍 문명 흥성기의 영화를 주장하는 이슬람 정치세력들의 약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초반 중동정책 구상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통해 다원주의적 가치와 세속화, 그리고 자유 시장 경제의 틀을 인근 아랍국 및 이란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라크의 안정화가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향후 내전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오히려 이라크 주변부가 이슬람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결과로 진행되고, 거대한 역내 반 이스라엘, 반미 전선이 구체적으로 조성될 경우 이라크가 종파별로 분리되며 극도의 혼란 상태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sup>239</sup>). 또한, 이란의 급부상은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사실 현재 미국의 대 중동외교 핵심은 이란의 봉쇄다. 이란을 제어함으로써 걸프 지역의 안정적 원유공급을 보장하고, 이슬람 혁명노선의 전파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명실상부한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다른 여타 국가의 핵개발과는 달리, 이슬람 이념의 본산이자 역내 강력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란의 핵개발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에 대한 이러한 일방주의 강경 봉쇄정책은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경쟁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효과만 높일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미국의 친 이스라엘 행보로 중동아랍 국가 내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지가 우려된다. 편애에 가까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미국의 가장 큰 우방 국가인 사우디 내부에서조차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결국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미세력의 구축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대중동구상의 민주화의 확산 전략은 상당부분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 즉, 일방적인 미국식 민주주의 강요는 오히려 반미세력 확산과 이슬람 정치세력의 강화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제정세는 이제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아닌 여러 세력 간 연합 등을 통한 다극체제의 변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미 중국, 러시아, 인도, 남미, 유럽연합(EU)등은 경제공동체 형성이나 군사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란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여 다극체제 내 국제 정치의 주체로서 부상하려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직까지도 “가장 미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고 믿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충돌을 간과한 채 미국식 모델을 확산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위태로울 것이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미국식 이념의 확산보다는 협력과 합의를 통한 정책 구상이 필요할 때이다.

238) 인남식, “중동의 최근 역학관계와 미국”, 「미래전략연구원」 정책대안, (2006.08). KiFS-2쪽

239) 정상률, “미국과 이라크,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국제관계”, 「월간 말」 통권250호, (2007.3) 4쪽



## 참고문헌

-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강주현 옮김 『Failed States: 실패한 국가, 미국을 말한다.』, 황금나침반, 2007
- 에리히 폴라트(Erich Follath)외 다수, 김태희 옮김 『Der neue Kalte Krieg: 자원전쟁』, 영림카디널, 2008
- Lan Rutledga, 김연균 옮김, 『미국과 석유-국제석유전쟁의 도래와 미국의 석유전략』 經文社
- 앤서니 샘프슨(Anthony Sampson), 정영민 옮김 『The Seven Sisters: 누가 지배하는가? 석유』 숲속의 집, 2002
- 이원우, 『고유가의 원인과 대응방안』, 에너지 경제 연구원 기본 연구 보고서, 2005
- 김재두, 『오일 100달러 시대는 오는가』, 김%정, 2006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투자전략부, 2008.5.26
- 홍성민 “중동평화질서와 경제협력”, [중동연구]제 16권, 한국외대 중동 연구소, 1997
- 김국신, 이현경 “반테러 전쟁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통일정세분석, 2001
- 정상률 “이란대선 이후의 중동 정세 변화전망” 정세와 정책, 2005, 8월호
- 홍순남 “아라파트 이후 중동평화와 미국의 대중동정책”, 한국이슬람학회 논총15집, 한국이슬람학회, 2005
- 금상문 “미국의 ‘대 중동구상’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 외교정책”, 하계학술대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이장훈,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는 우리 구역”, 주간조선, 2006.6
- 인남식, “중동의 최근 역학관계와 미국”, 미래전략연구원, 정책대안, 2006.08.21
- 정상률 “미국과 이라크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국제관계”, 월간 말, 2007, 3월호
- 정상률, “석유자원 확보 등 중동패권 유지 위한 미국의 대 중동정책”, 진보적시사종합지 월간 “말”, 2007.4